



3면

“주거단지에 쓰레기 발전소 결사 반대”

2025년 5월 21일 수요일 (음 4월 24일) 제374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 경 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고령친화복합단지 5개년 계획 착수

도, 전북특별법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력 추진
연구개발·생산·유통 등
산업 전 주기 아우르는
인프라 단계적 집적돼

전북특별자치도가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고,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인 고령친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5개년 진흥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황철호 국장은 20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전북특별법 제3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북자치도에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를 지정·조성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추진된다.

단지 내에는 연구개발, 산업생산, 인재양성 등 고령산업 전 주기를 아우르는 인프라가 단계적으로 집적된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실버산업의 시장 규모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30년에는 60세 이상 고령 인구가 14억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같은 해 미국의 실버산업 시장 규모는 약 3.5조 달러, 중국은 2.2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 주요국도 이미 에이지테크(Age-Tech)를 중심으로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국립노화연구소(NIA)를 통해



모의 투표체험 하며 투표용지 받는 유권자

장애인유권자 선거교육 및 투표체험이 열린 20일 전북장애인복지관에서 유권자들이 모의 투표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시스 제공>

관련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은 돌봄 로봇 개발과 보급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중국 역시 고령자 산업을 국가전략으로 격상시키고 스마트 헬스케어 기반 구축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전북연구원과 함께 수립한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도내 국가산업단지 내 약 40만평 규모의 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총 6,000억원이 투입되며, 연구단지와 산업단지, 주차장, 생태공원 등이 단계적으로 조성된다. 특히, 고령친화 산업기술원, 인증원, 기업지원단, 진흥

재단, 인재개발원 등의 설립도 포함된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생산·유통’이 집적된 국내 최대 실버산업 거점단지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도의 목표다.

현재 전북자치도는 복합단지 조성 타당성 연구용역비를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 상황이다.

도는 2025년부터 진흥계획을 수립해 복합단지 지정과 기업 유치, 재원 계획 등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2월 원가심사를 마

쳤으며, 4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용역 수행기관으로 최종 선정했다.

황철호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첨단 기술 기반의 고령친화산업은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 성장의 기회”라며 “전북을 글로벌 실버산업의 전진기지로 육성할 수 있도록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책사업화와 함께 국내외 고령친화기업 유치, 중국 등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와 경기도가 20일 전북도청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및 지역 간 상생협력 실천을 위한 상호 기부를 진행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고향사랑 상호기부로 상생

전북자치도·경기도 공무원들 총 20명

2023년 체결 상생발전 합의 바탕으로 참여

전북특별자치도와 경기도가 20일 전북도청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 기부금 기부를 진행했다.

이번 기부는 양 기관 소속 공무원 각 10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기관별로 100만원씩 기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번 상호 기부는 2023년 체결된 ‘전북·경기도 상생발전 합의문’의 실천 이행 차원으로, 해당 합의문에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관련한 협력 모델 구축, 상호 홍보 및 참여 확대가 명시돼 있다. 양도는 이를 실천에 옮기며 상호 연대의 가치를 보여줬다.

이날 경기도청 직원들은 전북도청 1층에 마련된 ‘답례품 홍보관’과 ‘전북사랑기부 명예의 전당’을 견학하고, 전북의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방식과 성과를 공유받는 시간도 가졌다.

답례품 홍보관은 전북 지역 농특산물과 우수 제품으로 구성된 전시 공간으로,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지역 특산품의 매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전북사랑기부 명예의 전당은 고액기부자의 이름을 명패로 새겨 감사의 뜻을 전하며, 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청 직원들은 전북사랑도민증도 발급받았다. 이 카드는

전북의 지역 거주자가 전북프렌즈(lovecard.jb.go.kr)에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형 카드로, 투어패스 1일권과 함께 전북 내 관광지, 맛집, 숙박시설 등 가맹점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상호 기부를 계기로 경기도와의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고향사랑기부제의 전국 확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지형 전북자치도 대외협력과장은 “이번 기부는 양 도가 협약의 의미를 실질적으로 구현한 모범사례”라며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함으로써 고향사랑기부제의 진정한 가치를 알리고, 전국 확산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 주소지를 제외한 타 지자체에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기부 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 특산품·관광상품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온라인 고향사랑 e음 홈페이지(lovegohyang.go.kr), 은행 앱(농협 등), 액티브키(놀고팜)를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에서는 전국 농협은행, 농축협 대면 창구에서도 가능하다. /이만호 기자

비파괴 3D 융합기술 활용 품질검사 장비 고도화 구축

도, 중기부 ‘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 지원’ 2년 연속 선정

전북특별자치도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5년 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 지원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됐다.

도와 전북테크노파크는 이번 공모에

서 ‘비파괴 3D 융합기술을 활용한 품질검사 장비 고도화 구축사업’이 최종 선정되며, 총사업비 22억6,000만원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의 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하며, 과제당 최대 15억원 이내, 최대 18개월간 지원된다. 신규 장비 구축 및 기존 장비의 기능 고도화를 통해 지역 기업의 기술경쟁력과 제품 신뢰도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도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중소·

중견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600kV 중대형 3D 엑스선 스캐너’ 도입을 결정했다.

전북테크노파크는 신규 도입 장비와 기존 엑스선 3D스캐너 장비들과 연계해, 소형부터 중대형까지 아우르는 기업수요 맞춤형 품질검사 지원 및 디지털 3D 융합기술 연계 전주기 One-Stop 제품 품질 고도화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감사와 사랑이 피어나는 5월, 가족과 함께 늘 행복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완주군의의회

